

## 大學 教授와 社會奉仕 (좌담회)



사 회 : 李 敦 熙 (서울大 師範大 學長)  
 참 석 : 金 東 喆 (梨花女大 新聞放送學科)  
           車 仁 錫 (서울大 哲學科)  
           趙 成 河 (高麗大 經營學科)  
           魯 仁 珪 (漢陽大 産業工學科)  
 원고정리 : 崔 敬 桓 (本 協議會 研究員)

일 시 : 1987년 5월 27일

장 소 : 본 협의회 회의실

사회봉사 활동의 궁극적  
인 動機는 使命感

司 會 대학 교수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활동과 자신들의 학문적인 성장을 위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이외에 때로는 학교 안에서 하기도 하지만, 주로 학교 밖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의 사회봉사 활동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또 분야

에 따라서 활동의 양상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 좌담회에서는 대학 교수의 사회봉사 활동의 일반적인 상황에 관해 먼저 말씀을 나누고 나서, 사회봉사 활동의 動機와 의의 및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의 지역 사회에 대한 역할이 어떠한가 하는가, 교수의 정치 참여의 범위와 한계는 어떠한가 하는가, 産學協同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의 각기 다른 전공 분야에서 사회봉사 활동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그 동기와 의의 그리고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는 소재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金東喆** 전문 분야에 따라서 특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은 대부분 지역 사회나 공공기관에서 어떤 문제의 해결을 의뢰해 왔을 때, 그것에 대해 연구 분석을 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곤 합니다. 예를 들면 범죄사회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은 非行靑少年의 문제를 나름대로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해 주고 있지요.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은 言論謀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도와주거나, 신문이나 방송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자문을 해 주기도 하고 政策立案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사회사업

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은 보형이나 노인 문제, 기타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깊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분야의 교수들은 자신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직접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魯仁珪** 공과 계통 교수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며 활동하고 있는 곳은 기업체입니다. 기업체의 委託研究를 맡아서 기업의 경영상의 문제, 생산성 향상 문제, 품질 관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원가 절감에 대한 문제 등 기업체가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분석하여 그 대책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의 간부나 직원,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 대한 재교육에도 참여하여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과학기술처나 상공부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생산성 본부와 같은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생산 관리 기사나 품질 관리 기사 양성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산 관리 기사나 품질 관리 기사의 養成教育場에 나가보면, 그 사람들의 직분이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健在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수의 사회봉사 활동은 사회 요구에 대한 부응도 중요한 동기가 되겠지만, 이보다는 사명감이 보다 더 중요한 동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인규 교수)

래서 그 사람들에게 최신 기법을 가르쳐서 생산성을 높이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체가 국제 경쟁력에서 외국의 기업체를 능가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용솨음치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동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회 요구에 대한 부응도 중요한 동기가 되겠지만, 사명감이 교수의 사회봉사 활동의 궁극적인 동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趙星河** 경영학 분야에서도 산업계와의 접촉이 빈번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동기 중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회 활동이 경제적인 수입 원천이 된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학 분야에서는 산업계의 動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대학에서의 교수와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산업계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수에 따라서는 자기의 명성을 유지하거나 능력을 인정 받기 위해 사회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산업계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意思 혹은 政策決定過程에서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대학 교수라는 직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지 않아 있습니다. 경영학이라는 학문의 특수성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산업계와의 접촉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때문에 다른 학문 분야의 교수들로부터 학교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학교 밖의 일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司 龔 경제 분야는 경제 활동의 현장이, 산업공학 분야는 산업 활동의 현장이, 그리고 교육학이나 신문방송학도 현장이 있는데 비해 철학은 현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車仁錫 그것은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미국 사회에도 과연 철학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란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미국 사회에도 존·듀이나 조시어 로이스와 같은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가 있어서 그들의 말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分析哲學이

지배적인 철학이 되면서부터 철학자들의 사회 참여가 점점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배경이 다르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철학자들의 사회 참여를 기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불교 전통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세속적인 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홀로 사색하고 명상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철학자들에게도 그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격 탓도 있지만, 전공 분야가 社會哲學이기 때문에 다른 철학 전공 교수와는 달리 사회 참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철학연구회 회장직에 있으면서 Y.M.C.A.와의 협동 프로젝트하에 社會敎育의 일환으로서 2주에 한 번씩 철학 강의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응도 꽤 높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사회봉사를 한 경험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社員의 意識敎育을 위해 철학 교수들을 부르는 데,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과의 괴리가 있어서 내심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회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은 매우 제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 교수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 발전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어떤 價値基準을 제시한다든가, 혹은 어떤 가치관에

입각해서 비판한다든가 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는 생각도 듭니다.

## 교수의 사회봉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

司 龔 제가 전공하고 있는 교육학의 경우, 학문 성격 자체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대학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敎育活動의 改善과 관련된 학문이기 때문에 참여의 범위가 어느 영역보다도 넓은 편입니다. 교육 관련 각종 연구소, 사회 단체, 정부, 시·도교육위원회, 학교 등에서 교육학자를 가만히 앉아 있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직을 맡고 있어서 여러 가지 요구들을 의도적으로 사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보직을 맡기 전에는 온갖 종류의 정부 기관, 사회 공공단체에서 강의, 집필, 자문 등을 요청해 왔습니다.

교육학자들이 이와 같이 많은 교육 활동의 현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학자들에게 한국 교육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교육학자들이 한국 교육을 망쳤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만큼 책임을 물어 오는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학의 경우 실제로는 교육 이론과 교육 현장의 괴리가 어느 학문 분야보다도 더 심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로는 우리나라 교육학자들이 한국의 교육 문제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이론화하고 체계적으로 분

석하며, 또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일에 역량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조성하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수들이 학교 안에서보다도 학교 밖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학생들이나 사회에서의 인식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밖에 많이 돌아다니는 교수를 학생들은 시간 강사라고 혹평하기도 하고, 사회에서는 기껏 사람을 잘 부려 먹고 나서 저 사람은 연구도 안하고 돌아다니면서 회의에나 참석하고 강연이나 하고 잡문이나 쓴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 비난을 받는다면 아무래도 교육학자들이 가장 많이 받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가 교육학자들에게 요구하는 봉사 활동의 범위와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에게 있어서 사회봉사 활동은 생활의 일부로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대충 분야별로 대학 교수의 사회봉사 활동상을 개관해 보았습니다. 교수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는 비록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해 볼 때 크게 다섯 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첫째는 사명감이라고 할 수 있고, 둘째는 사회의 요구에의 부응, 세째는 연구를 위한 현장 자료 수집, 네째는 수입의 원천, 다섯째는 명성의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두번째의 동기를 사회

봉사 활동의 本來的 동기라고 한다면,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의 동기는 非本來的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명감과 사회의 요구에의 부응이라는 사회봉사 활동의 본래적 동기가 얼마나 잘 실현될 수 있으며, 또 실현되고 있는가에 관해 교수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수 집단에 대한 사회 신뢰도가 높아

魯仁珪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 시스템은 외국 기업의 생산 시스템에 비해서 열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산업공학 중에서 특히 生産管理 부분을 전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은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나가서 자료도 수집하고, 현장 교육에도 임하며, 기업의 책임자나 중간 간부들로부터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도 합니다. 또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敎室授業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家電業體의 생산 시스템을 설계하는 위탁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실제로 공장장과 함께 공장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니, 그 공장장이 “우리들은 늘 출입하면서도 보지 못했는데,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더군요. 저로서는 공장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해 온 책임자가



“대학 교수는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본업 이외의 다른 일을 해주도록 사회로부터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돈희 교수)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 공장장은 오히려 제가 공장의 실정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산업계에서는 교수들의 지식을 현실 감각이 결여된 상아탑적인 지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상호 불신감이 사회봉사 활동에 있어서 큰 장애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趙成河 國家投資機關의 '86년도 경영 평가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영학 교수들인데, 경영학 교수들이 국가 투자기관의 경영 성적을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하면 그 성적에 따라서 투자기관 직원들의 상여 수당이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 투자기관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그



“교수는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 이외에 사회에 대한 파수꾼으로서 비판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大局的인 의미에서의 사회봉사가 아니겠습니까.”  
(김동철 교수)

그러나 마지막으로 평가를 할 때 갈등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전문적인 경영인들의 경영실적을 제가 한달 동안 보고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한 평가 받는 기관에서는 굉장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호감을 사기 위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접근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이런 일을 대학 교수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도 하더군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다른 어떤 전문가 집단보다도 교수 집단을 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교수들한테 의뢰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가 대학 교수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학 교수들이 그래도 양심껏 일한다는 인식 때문에 교수들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교수 집단은 서어비스 제공이 되지 말아야

司 龢 주변에 있는 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부가 정책 입안 과정에서 교수를 참여시키고 난 뒤, 신문지상이나 국민들이 비판을 하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만든 것이다. 교수들이 연구한 결과를 정부가 채택한 것이다.”라고 변명한다든대요. 말하자면 들러리를 세운다는데, 혹시 이런 경험을 해 보셨다면 말씀을 해 주시죠.

趙成河 며칠 전에 경제기획원의 고급 관리한테 들었습니다만, 經濟政策 수립에 관해 교수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다고 합니다. 경제부처의 관리들이 정책을 수립할 때 판단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교수들의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 정책에 대해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끌어 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가능한 한 많은 교수들을 끌어 들여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더군요.

車仁錫 다렌도르프는 사회를 계층화할 때 크게 支配集團과 被支配集團으로 나누는데 다시 지배 집단 아래에 서어비스 제공을 두고, 지식인 집단은 별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인 집단이 다렌도르프가 말하는 그러한 지식인 집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식인 집단이 서어비스 제공이 되어

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 원천을 생각하다 보면 지식인 집단은 자연히 서어비스 제공에 속하는 단순한 데크노크라트가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요.

趙成河 제가 기업체와 접촉하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학교 사회가 기업보다 오히려 뒤떨어진 분야가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경영학 계통에는 외국에서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많은데, 기업인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현실을 잘 도른다고 해요. 그러면 경영학 교수들은 “글쎄, 현실은 잘 모르지만 원칙이라는 것이 결국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대학 교수가 사회의 문제에 그때 그때마다 딱 들어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지 않다기 보다는 어느 경우에도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도 없겠지요. 따라서 교수들이 사회에 대해 강조해야 할 것은 ‘正道를 따라야 한다’ 또는 ‘가치 판단을 내릴 때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의미에서 보면 자기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전공하고 연구하는 분야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연구하던 자료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變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교수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

司 龢 대학 교수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本業 이외의 다른 일을 해주도록 사회로부터 요청받고 있습니다. 아마 교수 이상으로 자기 본업 이외의 것을 해주도록 요청받고 있는 직업도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러한 사회적인 요구가 교수들로 하여금 참여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느냐, 교수가 참여함으로써 실제로 보람을 느끼느냐, 그리고 교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회의 여러 조직체들이 교수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장치에 그치느냐, 달리 말하면 대학 교수의 사회봉사 활동의 의의가 실제로 어디에 있겠느냐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車仁錫 고대에 왕 옆에는 점성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司祭가 있고요. 아마 권력의 정당성이나 권위와 지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인이 권위에 도전한다든가 혹은 권위를 확립시켜 준다든가 하는 역할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의 경우는 하나의 장식품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종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무엇인가 잘못되면 교수가 한 것이 다라는 말도 다 그러한 측면에서 나오는 것이죠. 제 생각같아서는 지식인 집단이 수입원 때문에 마지 못해 불려가서 여러 가지로 가책 받을 일을 많

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다운 보람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金東喆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교수는 일종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이고, 도와 주는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지적인 면을 개발하여 현실에 적용시킴으로써 어떤 답안을 제시해 주었다는 성취감 내지 만족감을 가질 수 있겠죠. 수입원 확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성스러운 것이라고 했을 때, 사명감을 완수했다는 보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다, 향상이 됐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다는 면도 있겠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누구 말마따나 한국 교육을 망쳐 버렸다는 비평도 받을 수 있겠죠. 반드시 그렇게 나쁘게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趙成河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 교수에 대해 상당히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까. 교수는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이 職分인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 옛날의 스승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교수들이 후한 대접을 받고 성직자가 해야 할 주례도 교수가 제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타락하기 쉬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正道를 지켜야 한다는 역할 기대 때문에 교수가 우리 사회에서 특수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확실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司 龢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교수들이 다른 나라 교수들에 비해서 사회적인 역할 기대가 더 많지 않습니까.

車仁錫 자질구레한 역할들을 많이 수행하라 그러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 교수들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변화의 推進勢力이 누구냐를 생각해 본다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지배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 즉 권력 엘리트에 속하는 군부 엘리트, 관료 엘리트, 정치 엘리트, 경제 엘리트들에 대해 대학 엘리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저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한테 호모를 받는 젊은 교수들이 정당에 들어가면 두말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권력 메카니즘이 지식인에게 어느 정도까지는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허용하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면에서는 전혀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학생들한테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죠. 정부와 학생들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버린 실정이 아닙니까.

魯仁珪 대학 교수들에 대해 사회에서는 분명히 좋은 면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도 험악해지니까 그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교수 자신이 정신적으로 타락해서 그런 방향

이로 질책을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趙成河** 다른 측면을 덧붙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전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단체같은 기관이 전문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대로 양심적이고 학식과 식견이 있는 교수들이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분야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金東喆** 조선생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이 많고 또 그 사람들의 권위가 확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法學을 공부한 교수들의 역할이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신문의 편집 책임자들도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신문의 제작이라든지 내용에 관해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항용 옳다고 생각한 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다거나 倫理的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할 때 신문에 중사하지 않은 과외의 사람으로서 조언하는 정도이지요.

**司 龢** 제작 과정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신문에 논설을 쓰는 사람들, 신문에 기고하는 사람들, TV나 라디오에 연사로 출연하는 사람들은 각 분야의 일선 전문가들이 아니라 교수들이 많습니까. 신문에서도 보면 자녀교육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유치원 원장이

라든가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뛰어난 현실 감각을 가지고 더 잘 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로 하여금 쓰게 하고, 또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현장의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들을 불러서 이야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金東喆** 그렇죠. 그 분야 전문가들을 발굴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선진 외국의 신문에서는 대기자라고 하는게 있는데, 외교 문제만을 담당한다든가, 중공 문제만을 담당하고 있어요.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에는 몇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대학에서 외교학을 전공하는 사람보다도 풍부한 식견을 갖고 있어서 그러한 분야에 관해서는 대학 교수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 문제나 비행 청소년 문제가 생기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없으니까 의례 사회심리학자를 동원하죠. 전문가가 있는 분야에서는 대학 교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전문가가 없는 분야에서는 대학 교수를 많이 활용하죠. 그게 사회의 요망이 아니겠습니까.

**魯仁珪**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대학 교수가 연구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대학의 3대 기능과 관련하여 필연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회의 많은 요구에 교수가 과연 專門人力으로서 부응했느냐 하는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기업을 상대로

일을 할 때, 대학 교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현실 감각이 없는 상아탑적인 지식이라고 불신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 인력이 양성되면 대학 교수는 물러나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교수 자신들이 어떤 분야에 전문가가 돼서 사회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좁전에 차 인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권력 엘리트들이 교수들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권력 엘리트들은 대학 교수들이 너무나 편협된 사고를 한다, 큰 것을 잘 못 본다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방어능력을 가져야 되겠고, 또 전문성을 제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요구를 보다 긍정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수용해야 되겠습니다.

## 사회에 대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司 龢** 대학 교수가 하는 사회적인 활동의 여러 가지 양상과 동기, 의의, 그리고 문제를 동시에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보다 이념적인 차원으로 끌어 올려 보겠습니다. 사회 혹은 지역 사회에 대한 교수의 역할이 과연 어떠한지 하느냐, 교수가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의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면, 어떤 종류의 일에 봉사의 사명감을 가져야 하고, 어떤 종류의 전문성으로써 그 역할을 해



“교수의 사회봉사에 있어 자신의 학문적 영역과 전문성이 위협을 받았을 때는 과감하게 떠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인석 교수)

야 하는가에 관해 논의해 보기로 하죠.

金東喆 교수는 가르치고 연구하던 그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야이든간에 사회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갖는다는 것은 사회가 잘못되었을 때 무엇인가 한마디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사회에 대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비판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大局的인 의미에서 사회봉사가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사회의 가치관을 계도하고 사회에 대해 지적으로 계몽하며,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치유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잘못에 대해 과감하게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교수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司 會 정치 문제를 비롯한

사회 문제에 대해 지식인으로서 비판하는 행위도 교수의 대 사회봉사의 한 항목이나, 항목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군요.

車仁錫 교수의 사회적 비판도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쓴다거나 해서 결국 大衆謀體를 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교육도 마찬가지이지요. 최근 모 TV 방송국에서 토요일 저녁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획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참석한 교수의 말을 들어 보면 자기는 할 말을 다 했는데 중간에서 끊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알면서 가느냐고 핀잔을 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변명을 해요. 자유롭고 대등한 상황에서 자기 의사를 발표하고 또 교육할 수 있는 여건하에서만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누구한테 화살을 돌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은 제가 TV에서 그 프로그램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석자 중에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청중을 誤導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같은 지식인으로서 환멸이 느껴지더군요. 오히려 그러한 이야기를 방송국에서 끊어 주었으면 더 좋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식인들이 이런 상황까지 도달했느냐라고 생각하면 비판스러워지더군요.

### 대학에서 非定規教育을 실시해야

司 會 지식인으로서의 교

수들이 가지는 사회 비판의 기능이 公的인 역할인지 아닌지는 여기에서 논외로 하고서라도, 아무래도 비판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제약이 너무 심하면 심한대로 교수는 위축될 것이고, 반대로 너무 느슨하면 교수들의 비판적인 역할이 방만해지기 쉽고, 어떻게 보면 지식인으로서의 교수가 계도하는 대상인 大衆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위험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는 화제를 平生教育이나 사회교육쪽으로 돌리기로 하죠. 교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크게 연구의 능력과 교육의 능력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연구의 능력은 대외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데 비해 교육의 능력은 대개 학교 안에서 끝나 버리고 맙니다. 학교 밖의 대상자들을 위하여 교육의 능력으로써 봉사하는 기회는 적은 편이지요. 교수들이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대학마다 개방하는 특수대학원, 평생교육원, 기타 서어비스적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의 기능 자체와 사회와의 연계를 보다 원활하게 해 줄 수 있고, 대학 자체가 현실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金東喆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교육의 기회 균등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





“교수들이 사회에 대해 강조해야 할 것은 ‘正道를 따라야 한다’ 또는 ‘가치 판단을 내릴 때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하 교수)

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교육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학이 문호를 개방해야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의 교육 기능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교육 받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을 위해 대학에서 非正統的인 교육, 또는 非形式的인 교육(non-formal education)을 실시해야 됩니다. 야간이나 주말 또는 방학 기간에 교수가 자신이 맡은 본연의 업무 이외에 별도로 교육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명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편다는 심정과 마찬가지로요. 또 하나는 아무리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래 전에

교육 받았다면 급변하는 사회 추세에 제대로 적응할 수 없게 되죠. 그 사람들에게도 재교육 또는 계속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도 분명히 대학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趙成河 각 대학의 경영대학원이나 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 무역대학원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재교육의 기회를 주고 있죠. 그러나 대학의 平生敎育院은 언론기관의 문화 센터 등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학에서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기보다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사회의 일반 교육기관과는 다른 대학다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金東喆 언론기관의 문화 센터의 활동이 많이 알려졌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을 사회교육이나 평생교육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그보다 더 전문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개설하여 학위를 주는 야간대학원뿐만 아니라 계속교육의 차원에서 각종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좁전에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을 개방함으로써 현실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기로 하죠.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교수들은 언어지진아들이나 정신박약아들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

다. 그 분야 교수들이 연구하고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것도 보람이 있겠지만, 언어지진아나 정신박약아를 둔 부모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큰 보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언어 장애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모두 몇 명 되느냐 하면, 40명도 채 못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대학에 있기 때문에 언어지진아를 둔 부모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 자식 좀 봐 달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문의를 많이 해 와요. 그래서 言語聽覺센터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더군요.

車仁錫 독일에는 대학이 物理的으로 도시의 중앙에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프라이부르크 대학도 도시 북쪽에 있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각 교실마다 특강을 하는데 시민들이 와서 듣습니다. 그리고 독일에는 대학의 등록금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능력만 된다면, 高學年 세미나에 들어가도 되고 저학년 세미나에 들어가도 됩니다. 평생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별도의 市民敎育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자유롭게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독일 대학의 특징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오후 6시만 되면 직원에서부터 교수들에 이르기까지 다 퇴근하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도시 안에 있는 우리나라 대학들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産業界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司 龔 이제는 産學協同으로 화제를 돌리기로 하죠. 대학 교수들은 대학내에서 축적하고 있는 기초·응용과학 기술이나 최신 경영 기법에 관한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산업계에 전달함으로써 기업체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노인규 선생님께서 산업계를 위해 대학 교수가 봉사하는 활동 양상과 그 활성화 방안에 관해 말씀을 해주시죠.

龔仁珪 산학협동을 통해 대학 교수가 봉사하고 있는 활동 양상은 첫째로는 대학에서의 연구 결과를 有償 또는 조건부로 산업계에 제공하는 것, 둘째로는 위탁연구 또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 셋째로는 산업계를 위하여 특별 강좌, 세미나, 심포지움, 또는 교외 강좌를 개최하는 것, 넷째로는 기업의 相談役,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거나 기업의 경영 진단을 해 주는 것, 다섯째로는 산업계가 위탁하는 연구원을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대략 정리될 수 있겠죠.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 교수의 활동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대학에 종사하고 있는 교수들 대부분이 기업 경영의 경험이 없고 아직도 상아탑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 하여금 산학협동의 관심을 갖도록 하는 개발 노력이 부족하며, 산업계의 문제를 해결하

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수들은 산업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개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는 기업의 부조리 현상 또는 산업 기술 정보의 기밀 누설을 두려워하여 외부 기관의 교수 및 학생들이 기업 내부에 참여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産學協同事業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산학협동법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요청됩니다.

셋째는 현대 기업의 급진적인 발전 속도로 말미암아 산업계가 學界人士의 연구 개발 능력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학은 연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 인력 및 연구 시설을 보강해야 할 것이며, 연구의 내용면에서도 산업계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계는 편견을 가지고 대학을 상아탑적인 연구만 하는 곳으로 보지 말고, 현장 문제를 대학과 협력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산업계에서 대학에 대해 성급한 성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상호 불신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호 불신감을 해소하고 상호 협력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연구 개발에 대한 이해와 인내 그리고 과감한 연구 개발 투자와 대학의 성심

성의를 다한 연구 성과가 학내에서 응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교수는 학문의 영역과 전문성을 유지

司 龔 다음에는 매우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교수의 정치 참여의 범위와 한계에 관해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죠.

趙成河 제가 3년 동안 학교에서 처장 일을 맡아보면서 홍보를 직접 담당했었습니다. 어떤 사건만 나면 기자들이 “처장님이 기자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한 말씀 해주셔야죠”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 하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 기자들은 “교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통 사람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교수들의 말은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600명 교수 중에서 30명이 서명해도 그것은 상당히 큰 기사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어떤 자리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을 교수가 했을 뿐인데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 말을 문제시하는 게 아닌가, 달리 말하면 교수가 한 말이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비중을 두거나 또는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응용교수다 탈렌트교수다 라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혁신교수다 서명교수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교수라는 직위에서보다는

개인으로서 자기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한데 거기에 사회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수의 위치는 어느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황仁珪** 저는 이른바 어용교수, 탈렌트교수, 혁신교수와 같은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꼭 개의를 해야 되느냐 의문이 됩니다. 연구나 교육은 등한시 하고, 사회 참여를 본업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런 호칭을 붙인다면 그건 일리가 있겠죠. 그러나 교수가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데도, 이런 정도의 호칭 때문에 위축되어 사회봉사 활동을 주저해야 할지요. 교수들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사회봉사에 임할 때는 설령 이러한 호칭이 붙여진다 하더라도 개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교수가 어용교수라고 지칭을 받았다고 할 때 자신이 스스로를 반성하여 내가 과연 나의 학문적인 영역과 전문성을 유지하

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확실히 내가 내 영역을 지키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면 어용교수라는 명칭에 개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대학 교수들이 사회 참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趙成河**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졌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교수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비중이 있는 교수들이 비록 소신졌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 본의 아니게 사회에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대학 교수를 自然人이나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떤 의미를 자꾸 부여하고 있는 현실을 등한히 한다면 대학 교수로서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司 肅** 대충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차인석 선생님께서 철학 교수로서 교수의 사회봉사의 자세에 관해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죠.

**車仁錫** 어용교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官邊學者라고 정의를 내렸거든요. 어느 사회든지 그런 양반들이 있게 마련이 아닙니까. 또 일부 교수들이 관변학자가 되어야, 나머지 교수들이 자신의 학문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노인규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학문적 영역과 전문성이 위협을 받았을 때는 과감하게 떠나야죠. 그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사회는 여러 가지 인연으로 얼켜서 협조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저도 과거에 정부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아 회의에 한 번 참석했는데, 거기서 듣기 싫은 소리를 했더니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음에는 부르지 않더군요.

**司 肅** 차 선생님 말씀에 의미심장한 결론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유익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여러 이야기들은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의 사회봉사 활동에 시사하는 바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